

## 삼국사기 신라본기 권1-권6

발제 최인호

### <질문>

- 조공제도의 초기정착과정과 그 성격
- 대체로 삼국은 독자적인 전략적 이해관념을 가지고 대당조공을 활용하고자 한데 초점을 두었던 것 같음.
- 통일제국의 부상과 삼국관계 변화의 동학
- 힘의 열세를 신라가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당조공 및 숙위제도의 역할은?
- 조공관계 성립 이전의 초기 삼국관계의 성격은 어떻게 규정해야 하나?
- 삼국간의 동족의식이 존재했나? 중국과의 구별의식은 통일신라 이후에 성립하는가?

### <당 이전 조공관계의 형식들: 3국->중국>

- 조공-책봉-사은 패턴이 성립함
  - “평원왕 19년 왕은 사신을 보내 주에 조공하니 주고조는 왕을 봉하여 고구려왕으로 삼았다.”
  - “장수왕 23년 6월 왕은 사신을 위(魏)에 보내어 조공하였다. (중략) 왕을 봉하여 (중략) 고구려왕으로 삼았다. 가을에 왕이 사신을 위에 보내 사례하였다.”
  - 신라 최초 조공기록, 중국문헌에는 진 무제 태강원년(280)에 조공한 기록이 있음  
“나물(奈勿) 이사금(尼師今) 二十六年(381) 26년(381) 봄과 여름에 가물었다.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렸다. 위두(衛頭)를 보내 부씨(苻氏)의 진(秦) [전진(前秦)]에 토산물을 바쳤다. 부견(苻堅) 이 위두에게 물었다. “경이 말하는 해동(海東)의 일이 옛날과 같지 않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 위두 가] 답해 말했다. “역시 중국과 마찬가지로 시대가 변혁되고 이름이 바뀌었으니 지금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
- 인질파견
  - “문자왕 원년 3월 위의 효문제가 사신을 파견하여 왕을 봉하여 의관, 복물, 거기의 장식물을 주었다. 또 왕에게 조서를 내려 ‘세자를 들여보내 조공케하라’하니 왕은 ‘병이 있어 못 보낸다.’ 하고 종속 승천을 보내 사자를 따라 대궐에 들게 하였다.
  - “고국원왕 13년 2월 왕은 그 아우를 보내 연(燕)에 칭신하니 그 부의 시체만 돌려 주고 그 모는 억류하여 볼모로 했다.
  - 인질은 북방민족의 강압적인 외교수단이었으며 일방적인 요청이었다.
- 구법사
  - “진흥왕 10년 봄, 양나라는 입학승인 각덕과 함께 사신을 보내 불사리를 전해 주었다. 이에 왕은 백관으로 하여금 흥륜사 앞길에서 맞아들이게 하였다.”
  - “진평왕 35년 7월, 수나라 사신인 왕세익이 와서 황룡사에 백고좌회를 설치하고 원

광 등 법사를 맞아 강론하였다”

- 왕권의 신성화와 왕족의 배타적인 신분의식 합리화. 종교적인 신성관념 강조.

• 청병

- “개로왕 18년 위에 사신을 보내 말하기를 과인은 나라를 동극에 세웠으나 시랑豺狼(고구려)이 길을 막아 영화는 입었으나 봉번奉藩의 인연이 없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한 장군을 보내서 우리나라를 구해주신다면, 비녀를 보내 후궁을 삼게 하겠습니다.”

- 청병 역시 대부분 형식적이고 중국의 군사적 우월감에 만족을 주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었음. 실질적 군사요청은 신라의 대당교섭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남.

• 사죄

- 개황 18년 영양왕이 말갈 무리를 이끌고 요서를 공략하니... 고종이 이를 듣고 대노하여 한왕경을 원수로 삼아 육해군으로 고구려로 쳐들어 왔다. 이에 원은 두려워 사죄사를 보내서 스스로 요동분사신임을 아뢰었다.

<당 이전 조공관계의 형식들: 중국->3국>

• 책봉사

- “장수왕 23년 6월 왕은 사신을 위에 보내어 조공하였다. 세조는 원외산기시랑 이오를 보내어 왕을 봉하여 고구려왕으로 삼았다.”

- 중국의 책봉은 정치적 구속력이 없고 조공사에 비해 횡수가 매우 적었다. 인명이 보이는 것도 3차례 뿐.

• 회사

- “장수왕 54년 3월 사신을 위에 보내 조공하였다... 이에 안락왕 진과 상서 이부 등을 보내어 국경에 이르러 폐幣(예물)을 전달하였다.

- 매우 적은회수만 이루어짐.

• 조위

- “장수왕 79년 12월 왕이 돌아가니 98세였다. 호를 장수왕이라 하였다. 위 효문제가 듣고 동교에서 애도식을 거행함과 동시에 알자복야 이안상을 보내 왕을 책봉하여 거기대장군 태부요동군 개국공 고구려왕을 추증하고 시호를 강왕이라 하였다.”

- 신라 백제는 보이지 않음.

• 책망

- “장수왕 68년 남제 태조 소도성이 왕을 책봉하여 표기대장군을 삼으니 왕은 사신 여노 등을 보내어 남제에 조공케 하였는 바, 위의 광주인이 바다에서 여노 등을 잡아 자기 나라 대궐로 보냈다. 이제 위 고조가 조서를 내려 왕을 책망하였다.” 당시 남제는 위에 조공 중.

• 종합하면 중국의 사행은 매우 적고 형식적이었음. 거의 고구려에만 보내졌으며, 사행도 고구려 못지 않은 고위층이어서 외교상의 독립성을 살필 수 있다.

### <대당조공관계의 변화>

- 대체로 앞의 형식들이 반복됨
- 당의 견당사는 첩보행위 겸 사절의 역할 “고구려는 고창이 멸망한 것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여, 우리에게 대한 대접이 어느 때보다 후하였다.”
- 공물 및 사은물이 다양화됨.
- 신라입조사가 2인으로 증가, 관직 제수.
- 숙위제도의 등장- 후에 상술
- 신라가 수 차례에 걸쳐 청병사를 보냄. 백제 고구려 정벌의 기초.
- 종합
  - 제도화가 진전
  - 신라의 대당교섭 약진(25,22,34:고구려,백제,신라)

### <신라-중국 관계>

- 유교 및 중국 문물의 수용정도에 따라 인질외교->조공책봉외교->숙위외교로 변화해감. 인질, 책봉, 문물교류 등의 요소가 늘 병존함.
  - 유교윤리 수용의 지체, 나물(奈勿) 이사금(尼師今) (356년 4월 미상 음력): “...신라의 경우에는 같은 성씨를 아내로 맞이할 뿐만 아니라 형제의 자식과 고종·이종 자매까지도 모두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다. 비록 외국은 각기 그 습속이 다르다고 하나 중국의 예속(禮俗)으로 따진다면 도리에 크게 어긋났다고 하겠다. 흉노(匈奴)에서 그 어머니와 아들이 간음하는 것은 또한 이보다 더욱 심하다.”
  - 인질외교의 시작, 나물(奈勿) 이사금(尼師今) 三十七年春一月 (392년 1월 미상 음력) “37년(392) 봄 정월에 고구려에서 사신을 보냈다. 왕은 고구려가 강성했으므로 이찬(伊飡) 대서지(大西知)의 아들 실성(實聖)을 보내 볼모로 삼았다.
  - 왕호 또한 뒤늦게 나타나고, 帝와의 명확한 구분이 드러나지 않음. “지증(智證) 마립간(麻立干) 4년 (503년) 겨울 10월에 여러 신하들이 아뢰기를 ‘...신 등의 생각으로는 신(新)은 ‘덕업(德業)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뜻이고, 라(羅)는 ‘사방(四方)을 망라한다.’는 뜻이므로 이를 나라 이름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또 살펴보면 옛날부터 국가를 가진 이는 모두 제(帝)나 왕(王)을 칭하였는데, ... 이제 여러 신하들이 한 마음으로 삼가 신라국왕(新羅國王) 이라는 칭호를 올립니다.” 라고 하였다. 왕이 이에 따랐다.
- 수나라 이후 본격적인 청병활동 시작,
  - “진평왕(眞平王) 三十年 (608년 미상 음력) 30년에 왕이 고구려가 자주 강역을 침략하는 것을 걱정하여 수(隋)나라에 군사를 청하여 고구려를 치려고 원광(圓光)에

게 명하여 결사표(乞師表)를 짓게 하였다...”

- “진평왕(眞平王) 三十三年 (611년 미상 음력) 33년에 왕이 수 (隋)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표(表)를 올려서 군사를 청하였는데, 수 나라의 양제 (煬帝)가 그것을 허락하였다. 군사를 움직이는 일에 관해서는 고구려본기(高句麗本紀)에 실려 있다.
- 당 성립 이후 본격적인 여제정벌을 위한 외교전을 시작
- “진평왕(眞平王) 四十三年秋七月 (621년 7월 미상 음력) 43년 가을 7월에 왕이 당 (唐)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고 토산물을 바쳤다. 고조 (高祖)가 몸소 위문하고 통직산기상시(通直散騎常侍) 유문소 (庾文素)를 보내서 예방하고 조서(詔書)와 그림 병풍 및 채색 비단 3백 단(段) 을 주었다.
- 애초부터 정벌로 기울었던 것음 아님. “진평왕(眞平王) 四十八年秋七月 (626년 7월 미상 음력) 48년 가을 7월에 당 (唐)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 당 나라의 고조 (高祖)가 주자사 (朱子奢)를 보내서 조칙(詔勅)으로 고구려와 서로 화친하도록 타일렀다.”
- 대당외교 경쟁, “선덕왕(善德王) 九年夏五月 (640년 5월 미상 음력) 9년 여름 5월에 왕이 자제들을 당 (唐)나라에 보내서 국학 (國學) 에 입학시켜 주기를 청하였다. 이때 [당나라의] 태종 (太宗)은 천하의 이름난 유학자를 많이 불러 모아 학업을 가르치는 관원(官員)으로 삼고... 사방에서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경사(京師) 에 구름 처럼 모여 들었다. 이때 고구려·백제· 고창 (高昌) · 토번 (吐蕃) 역시 자제들을 보내 입학시켰다.

### <삼국의 대당외교 경쟁>

- “선덕왕(善德王) 十一年秋八月 (642년 8월 미상 음력) 8월에 [백제가] 또 고구려와 함께 모의하여 당항성 (党項城)을 빼앗아 당 (唐)나라와 통하는 길을 끊으려고 하였으므로 왕이 사신을 보내서 [당나라의] 태종 (太宗)에게 위급함을 알렸다.
- 김춘추의 대고구려 외교, 아직 나당연합을 확정하지 않음 “선덕왕(善德王) 十一年 (642년 미상 음력) ... 이찬(伊滄) 김춘추 (金春秋) [譯註 001] 를 고구려에 보내서 군사를 청하였다 ... [김] 춘추 가 나아가 말하기를 ‘지금 백제는 무도하여 긴 뱀과 큰 돼지가 되어 우리 강토를 침범하므로 저희 나라의 임금이 대국(大國)의 군사를 얻어서 그 치욕을 씻고자 합니다...’라고 하였다... [김] 춘추 가 대답하기를 ‘신은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군대를 청하는데, 대왕께서는 어려운 처지를 구원하여 이웃과 친선을 하는 데에는 뜻이 없고 단지 사신을 위협하여 땅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십니다. 신은 죽을지언정 다른 것은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였다...
- 선덕왕 대당 청병사와, 당의 반응, 기미책과 비슷함 “(643년 9월 미상 음력),가을 9월에 당 (唐)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말하기를 ‘... 저희 나라의 사직(社稷)은 반드시 보전될 수 없을 것이므로 삼가 신하인 저를 보내서 대국(大國)에 명을 받들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바라건대 약간의 군사를 내어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이에]

황제가 말하기를 ‘...내가 수십 수백 척의 배에 군사를 싣고 소리없이 바다를 건너서 곧바로 그 땅을 습격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대 나라는 여자를 임금으로 삼고 있으므로 이웃 나라의 업신여김을 받게 되고, 임금의 도리를 잃어서 도둑을 불러들이게 되어 해마다 편안할 때가 없다. 내가 왕족 중의 한 사람을 보내 그대 나라의 왕으로 삼되, 자신이 혼자서는 왕 노릇을 할 수 없으니 마땅히 군사를 보내서 호위하게 하고, 그대 나라가 안정되기를 기다려서 그대들 스스로 지키는 일을 맡기려고 한다. 이것이 세 번째 계책이다. 그대는 잘 생각해 보라. 장차 어느 것을 따르겠는가?’라고 하였다. 사신은 다만 ‘예’라고만 할 뿐 대답이 없었다. 황제는 [그가] 용렬하여 군사를 청하고 위급함을 알리러 올 만한 인재가 아님을 탄식하였다.”

- 당의 대고구려 경고 “선덕왕(善德王) 十三年 (644년 미상 음력 ) 태종 (太宗)이 ... 조서(詔書)를 고구려에 주며 말하기를 ‘신라는 우리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기고 조공을 빠뜨리지 않았는데, 너희 백제는 즉시 군사를 거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만일 또다시 그를 공격한다면 내년에 반드시 군사를 내어서 그대 나라를 칠 것이다’라고 하였다...
- 고구려의 나당연합 견제(보장왕 3년, 선덕왕 13년, 644년 ) “9월, 연개소문이 당에 백금을 바치자 저수량이 말하기를 “개소문이 그 임금을 죽였으니 구이에게도 용납되지 못하는 바입니다. 지금 토벌하려 하면서 그 금을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고정과 같은 종류이오라 신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당제는 노하여 사신에게 이르기를 “너희들은 모두 고무를 섬겨 관작을 누렸으면서도 막리지가 고무를 죽였으되 너희들이 원수도 갚지 못하면서 지금 다시 유설을 하여 대국을 속이려 하니 죄가 이보다 클 수 있겠느냐”하고 모두 대리에 의해 처결하였다.
- 당의 연호문제제기, “진덕왕(眞德王) 二年 (648년 미상 음력) 겨울에 한질허 (邯軻許) [譯註 001] 로 하여금 당 (唐)나라에 조공케 하였다. [당나라의] 태종 (太宗)이 어사(御史)를 시켜서 물어보기를 ‘신라는 신하로서 대국(大國)의 조정을 섬기면서 어찌하여 따로 연호(年號)를 칭하는가?’라고 하였다. [한] 질허 가 대답하기를 ‘일찍이 천자(天子)의 조정에서 정삭(正朔)을 반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조 법흥왕 (法興王)이래로 사사로이 기년(紀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대국의 조정에서 명이 있었다면 작은 나라가 어찌 감히 그렇게 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태종 이 그렇겠다고 여겼다.
- 연호문제에 대한 김부식의 평. 전략적 동기로 인한 사대와 자주적 위상사이의 갈등이 나타남“...변두리의 작은 나라로서 천자(天子)의 나라에 신하로 속한 자라면 진실로 사사로이 연호를 칭할 수 없다. 신라와 같은 나라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중국을 섬겨서 사신의 배와 공물 바구니가 길에서 서로 마주볼 정도로 잇달았다. 그런데도 법흥 (法興)[왕(王)]이 스스로 연호를 칭한 것은 알지 못할 일이다. 그 후에도 그 잘못된 허물을 이어받아 여러 해를 지냈다. [당(唐)나라] 태종 (太宗)의 꾸지람을 듣고도 오히려 머뭇거리다가 이때에 와서야 당 나라의 연호를 받들어 행하였다...”
- 당태종 김춘추 문답 “진덕왕(眞德王) 二年 (648년 미상 음력) 이찬(伊滄) 김춘추

(金春秋)와 그의 아들 문왕 (文王)을 당 (唐)나라에 보내 조공하였다. [당나라의] 태종 (太宗)이 ... 어느 날 [김춘추를] 불러 사사로이 만나서 금과 비단을 매우 후하게 주고 묻기를 ‘경(卿)은 무슨 생각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가?’고 하였다. [김] 춘추 가 꿰어앉아서 아뢰며 말하기를 ‘신(臣)의 나라는 바다 모퉁이에 치우쳐 있으면서도 천자(天子)의 조정을 섬긴 지 이미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백제는 강하고 교활하여 여러 차례에 침략을 마음대로 하였습니다...만약 폐하께서 당나라의 군사를 빌려주어 흉악한 것을 잘라 없애지 않는다면 저의 나라의 인민은 모두 사로잡히는 바가 될 것이고, 산 넘고 바다 건너 행하는 조공마저 다시는 바랄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태종 이 매우 옳다고 여겨서 군사의 출동을 허락하였다. [김] 춘추 는 또 장복(章服)을 고쳐서 중국의 제도에 따를 것을 청하자 이에 내전(內殿)에서 진귀한 옷을 꺼내어 [김] 춘추 와 그를 따라 온 사람에게 주었다...” 전략적 동기로 인해 중국의 문물제도가 전파됨.

- 진덕왕의 태평시, “진덕왕(眞德王) 三年 (649년 미상 음력) 왕이 비단을 짜고 오연태평송 (五言太平頌)을 지어 [김(金)] 춘추 (春秋)의 아들인 법민 (法敏) 을 보내 당 (唐)나라의 황제에게 바쳤다. 그 글에서 말하기를 ‘

대당 (大唐)은 큰 왕업(王業)을 개창하니  
 높디높은 황제의 포부 빛나도다.  
 전쟁을 그치니 천하가 안정되고  
 전 임금 이어받아 문치(文治)를 닦도다.  
 하늘을 본받음에 기후 [譯註 002] 가 순조롭고  
 만물을 다스림에 저마다 빛나도다.  
 지극한 어짊은 해 달과 짝하고  
 시운(時運)을 어루만져 태평으로 나아가네.  
 깃발들은 저다지도 번쩍거리며  
 군악 소리 어찌 그리 우렁찬가!  
 명을 여기는 자 외방(外方) 오랑캐여  
 칼날에 얹어져 천벌을 받으리라.  
 순후한 풍속 곳곳에 퍼지니  
 원근에서 다투어 상서(祥瑞)를 바치도다.  
 사철이 옥촉(玉燭) 처럼 고르고  
 해와 달은 만방을 두루 도네.  
 산악의 정기 어진 재상 내리시고  
 황제는 신하를 등용하도다.  
 삼황오제(三皇五帝)한 덕(德)을 이루니  
 길이길이 빛나리 우리 당나라.’라고 하였다.

[당나라의] 고종 (高宗)이 가상하게 여기고 법민을 태부경(太府卿) 으로 삼아서 돌려 보냈다

- 천자칙사 주관하의 맹서, 백제 정벌후의 당의 반도정책, “문무왕(文武王) 五年秋八月 (665년 8월 미상 음력) 가을 8월에 왕이(당나라)칙사(勅使) 유인원 (劉仁願), 웅진 (熊津) 도독(都督) 부여룡 (扶餘隆) 과 함께 웅진 의 취리산 (就利山) 에서 맹세를 맺었다 ... 당나라 고종 이 부여룡 에게 조칙(詔勅)을 내려서 돌아가 남은 무리를 어루만져서 우리와 서로 화친하라고 하였다.(그래서)이때에 이르러 흰 말을 잡아 맹세하였다 ... 그 맹세한 글은 다음과 같다. “지난날 백제의 앞선 왕은 ... 황제께서 성냄을 드러내어 삼가 죄를 물어 정벌하였으니 ... 망한 것을 일으키고 끊어진 것을 이어주는 것은 옛 성현들의 보편적인 가르침이다... 때문에 이전에 백제의 대사(大司稼正卿) 이었던 부여룡을 웅진 의 도독으로 삼아 그 조상의 제사를 지키고...각각 지난날의 감정을 없애고 좋은 화친을 맺어야 하고, 각각 천자의 명령을 받들어 영원히 번국(蕃國)으로서 복종해야 할 것이다...”
- 당의 고구려 정벌 제안 “용삭 원년(661) 고종이 인문에게 말하기를 이미 백제를 멸망시켜 그대 나라의 우환을 제거하였으니, 지금 고구려는 예맥과 함께 포악무도하여 ‘사대지례’를 어겼으니 이것은 선린지의를 저버린 것이다. 짐은 군사를 일으켜 이를 정벌하려고 하니, 그대는 돌아가 국왕에게 이를 알리고 함께 군사를 내어 고구려를 정벌하자.
- 신라의 대중국 관계 의식, 조공책봉을 전략적으로 활용 “문무왕(文武王) 九年春二月二十一日 (669년 2월 21일 음력) 2월 21일에 대왕이 여러 신하들을 모아 교서(敎書)를 내렸다. ‘지난날 신라는 두 나라 사이에 끼어서 북쪽은 정벌을 당하고 서쪽은 침략을 당하여 잠시도 편안할 때가 없었다. 병사들은 해골을 드러내어 들판에 쌓였고 몸과 머리는 경계에서 서로 나뉘어 뒹굴었다. 선왕께서는 백성들의 잔혹한 피해를 불쌍히 여겨 천승(千乘) 의 귀하심을 잊고서 바다를 건너 중국에 들어가 황제께 군사를 요청하셨다...”
- 중국 책봉을 빌려서 씌, 망국 유민을 품을 수 있는 이론적 토대로 활용. 엘리트간의 유대감이 존재했던 것인지? “문무왕(文武王) 十年秋七月 (670년 7월 미상 음력) 사찬(沙飡) 수미산 (須彌山)을 보내어 안승 (安勝)을 고구려의 왕으로 봉하였다. 그 책문(冊文)은 다음과 같다. ‘함형(咸亨) 원년 경오 가을 8월 1일 신축일에 신라왕은 고구려 상속자 안승 에게 명령을 내리노라...삼가 사신 일길찬(一吉飡) 김수미산 (金須彌山) 등을 보내 책명을 펼쳐 공을 고구려의 왕으로 삼을지니, 공은 마땅히 남은 백성들을 어루만져 모아 옛 영광을 잇고 일으켜 영원히 이웃 나라가 되어 형제처럼 섬겨야 할 것이다’...”

### <신라의 숙위제도>

- 정의와 성격
- 당대 군사제도로의 하나로 당의 수도에서 도성을 호위하는 위군의 사졸
- 신라의 외교적 난국 타개를 위한 새로운 친당정책, 인질외교, 조공외교, 문화외교, 혼인외교와 구별되는 새로운 방책.

- 신라가 자발적, 일방적으로 임명하였으며, 정치, 문화, 군사를 모두 접목한 종합외교전략. 하지만 중국기록과는 차이가 있음 예컨대 “중국 주변 국가는 신하를 칭하고 인질을 보냈다(夫四夷稱臣納子爲質)” 라고 숙위를 기록하기도 함.
- 통일전과 중대의 기능 변화
  - 왕족과 실무보조원이 동행함. 통일 이전에는 군사가 중심, 중대 이후에는 문화교류 외교적 관계 안정이 중심이 됨. 하대 이후에는 퇴락하여 인질로서의 의미가 강화됨.
  - 통일전에는 당도 전략적으로 활용. 김유신을 숙위시켜 한반도 점유 시도. 숙위에게 무장직을 수여.
  - 중대에는 문예 조의직을 수여
- 하대 숙위의 변질
  - 원성계가 당이 책봉한 무열왕계를 밀어내고 왕위 찬탈. 따라서 당 접근에 신중함을 기하여야 했음. 따라서 무열왕계로 숙위를 파견하는 정치적이 타협을 시도. 하지만 당은 숙위에게 당직을 주지 않음.
  - 신라의 숙위 파견이 어려워진 틈을 타서, 발해가 숙위파견 시도, 숙위가 상당한 특권이었음을 알 수 있음. “목종 장경 4년 2월(신라 헌덕왕 16년, 발해 선왕 7년, 824), 발해의 선왕은 대예 등 5인을 파견하여 숙위를 청했다.” 하지만 발해는 신라와 같이 일방적 파견도 아니고, 당측이 허용하지도 않았음.
  - 숙위의 단절이 조공사의 단절로 이어지고, 국력 하락과 같이 갔음.
  - 숙위의 일방적 성격도 훼손되었음. 중대까지는 처음에는 신라독단으로 보낸후 “인류, 인명” 하던 것에서 “청류숙위 講留宿衛” 로 변화. 귀국도 스스로 귀국에서 강제 방환으로 바뀜
- 숙위의 역할
  - 기본적으로 조공사의 역할을 겸함.
  - 인질로서 신라국왕 행동을 견제하고, 주로 왕족이었기 때문에 문제 발생시 새 왕으로 임명하여 파견가능. 인질 기능의 예는 “이 때 한림랑 박문준이 인문을 따라 옥중에 있었다. 고종이 문준을 불러 말하기를... 강수에게 명하여 인문의 석방을 청하는 표문을 지었다.” 문무왕의 고토 유민흡수책에 반달한 당 고종이 당시 시류하던 인문을 강제로 감금.
  - 문화교류사
  - 군사: 통일이전은 단순 병력요청이 아니라, 같이 계획에 참여한 무장으로서 역할도 함.
- 관련기록
  - 초대 숙위, “진덕왕(眞德王) 二年 이찬(伊滄) 김춘추 (金春秋)와 그의 아들 문왕 (文王)을 당 (唐)나라에 보내 조공하였다. ... [김] 춘추 가 아뢰기를 ‘신에게 일곱 아들이 있습니다. 바라건대 고명하신 폐하의 옆을 떠나지 않고 숙위(宿衛)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였다. [그러자] 그의 아들 문왕 과 대감(大監) ■■에게 [머물면